




동악산

	<p>주소 곡성군 곡성읍 도림로 175</p> <p>전화 061-360-8780</p> <p>추천 2</p>
	<p>이용시간 정보없음</p> <p>휴무일 연중무휴</p> <p>이용요금 유료(아래 상세내역 참조)</p> <p>주차시설 없음</p> <p>장애인시설 없음</p>
<p>관심여행담기 추천하기</p>	

삼남제일 암반계류 청류동 계곡 풍치 일품인 동악산 (위치 : 곡성읍~입면, 높이 : 736.8m)

우선 動樂山을 동락산 이라 읽지 않고, 동악산 이라 읽는 까닭부터 밝혀야 이 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대개 樂은 뒤에 달려 나올 때 락으로 읽힌다. 도락산(道樂山)이니 진락산(眞樂山)이니 하는 것이 그런 경우인데, 이 경우는 즐거울 락의 경우다. 그러나 동악산의 경우에는 풍류 락으로 읽어야 한다. 천상의 노래, 즉 음악이 울린다(동한다)는 전설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유래는 이렇다. 이 산의 개산조인 원효대사가 성출봉(聖出峰 형제봉 동봉으로 동악산 최고봉) 아래에 길상암을 짓고 원효굴(청류동 남쪽 골짜기)에서 도를 베풀고 있는데 하루는 꿈에 성출봉과 16아라한이 그를 굽어보는지라 깨어나 즉시 성출봉에 올라가 보았더니 1척 남짓한 아라한 석상들이 솟아났다는 것이다.

원효가 열일곱 차례나 성출봉을 오르내리면서 아라한 석상들을 길상암에 모셔 놓으니 육시(六時) - 불교에서 하루를 여섯으로 나눈 엄불독경의 시각으로 신조, 일출, 일몰, 초야, 중야, 후야. 만 되면 천상에서 음악이 들려 온 산에 퍼졌다 한다. 도림사 응진전에 봉안된 아라한상들이 당시의 것이라 전해지고 있으나 신빙성은 없다.

마을 주민들은 곡성 마을에서 장원급제자가 탄생하게 되면 이 산에서 노래가 울려 퍼졌다고도 한다. 남원 실상사 약사전의 약사여래상처럼 나라에 불길한 징후가 나타나면 땀을 흘리는 흉조를 나타내는 불상이 있는가 하면 동악산처럼 길조를 알리는 산도 있기 마련이다.

곡성의 진산인 동악산은 크게 두 산덕어리가 남북으로 놓여 있다. 각 산덕어리에는 비슷한 높이의 정상 있는데 이 두 산덕어리를 가르는 것이 배넘이재이고, 남봉(형제봉·동봉과 서봉으로 형성돼 북봉에 동악산, 남봉에 형제봉 이라 표기해 놓고 있지만 최고봉은 형제봉이 된다. 산이름의 유래가 성출봉(형제봉 동봉)에서 유래했다는 것과 주요 등산로가 형제봉을 중심으로 더 잘 나 있다는 점은 형제봉이 동악산의 주봉임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 산을 삼남 제일의 암반계류라 부르는 까닭은 산들목에 있는 도림사로 들어서면서 알게 된다. 그다지 깊지 않은 계곡인데도, 암반이 펼쳐지는 시원스런 풍세는 삼남에서 제일이라는 과찬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이고 길이도 200여m에 달한다.

청류동계곡이라 부르는 이 계곡의 암반에는 새긴 글자도 무수히 널려 있다. 누군가 이 암반계류의 절경마다 一曲(일곡) 二曲(이곡)하며 구곡까지 새겨 놓았는데, 더러는 깨지고 더러는 도로확장으로 사라지기도 했다. 도림사 입구 상가 주차장 부근에서 2곡, 4곡, 5곡 등의 곡이 릉과 清流洞(청류동), 丹心臺(단심대), 樂樂臺(낙락대) 등의 지명, 樂山玩草 吟風弄月(요산완초 음풍농월)이니 清流水石 動樂風景(청류수석 동락풍경)이니 하는 시구, 그리고 아무개 장구처(杖處)라 하며 자기 이름이나 호를 새긴 크고 작은 각자들을 마치 설악산 비선대나 두타산 무릉계에서처럼 발견할 수 있다.

도림사 일대가 관광지로 지정된 동악산은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 벚꽃은 쟁계사보다 약 1주일 늦다.

[코스 가이드]

동악산은 도로변에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드러난 산이라고 보기 쉽다. 그러나 실제 산행에 들어서면 산 안에 또 산이 있다는 감이 들 정도로 계곡 형성이 특이하다. 청류동 계곡이 상류에서 T자를 이루며 양쪽으로 각각 2~3km 이상 깊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합류지점에서 정상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주의를 요하는 것은 암산인 데다가 지름들이 가파른 암릉을 이루고 있어 어설피 변형 코스를 잡지 말라는 것이다. 잘못 든 암릉에서 고생하면 하루 종일 헤멜 수도 있는 약산이다.
 도림사 오도문에서 약 100m 오르면 청류동 구곡의 팔곡이 나온다. 여기서 북봉의 남동지름을 타고 북봉으로 오르는 셋길이고(북봉 정상까지 1시간30분 소요) 주계곡을 따라 약 100m 더 들어서면 길상암으로 오르는 갈림길이 나온다.(길상암을 거쳐 형제봉 정상까지 1시간 소요). 계속 주계곡을 따라 15분 정도 오르면 계곡 갈림길이 나온다. 오른쪽으로 빼곡한 소나무숲으로 오르는 길은 북봉으로 가는 좁은 길이고 왼쪽으로 난 뚜렷한 길은 배넘어재로 가는 길이다. 약 5분정도 더 오르면 길은 오른쪽(북서쪽)으로 꺾이면서 배넘어재로 이어진다(도림사에서 30분 소요) 북봉과 남봉의 경계를 이루는 배넘어재는 사거리다. 곧장 고개를 넘어서면 입면 대장리로 내려서게 되고 북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북봉으로, 남쪽으로 잡으면 최약산(697m)쪽으로 가다가 남봉인 형제봉으로 가게 된다. 어느 쪽으로 가든 양봉의 정상까지는 약 40분이 소요된다. 또한 줄곧 능선을 따르게 된다는 것도 같고 북봉이나 남봉이 주능선이 달리는 방향에서 조금 벗어나 솟아 있는 것도 같다.

우선 최고봉인 형제봉(남봉)쪽으로 나서 보자. 배넘어재에서 계단식으로 높아지는 능선을 따라 약 30분 오르면 형제봉 서봉에 이른다. (최약산 삼거리). 여기서 동쪽으로 건너다보이는 동봉(형제봉 정상)을 향해 잠시 내려선 다음 올라서면 된다(서봉서 10분 거리). 원효골로 내려서려면 최약산 삼거리에서 계속 직진해 최약산 정상에 이르기 약 500m 전에 서쪽으로 내려서는 가파른 사면길로 접어든다. 원효골 입구까지는 최약산 삼거리에서 약 40분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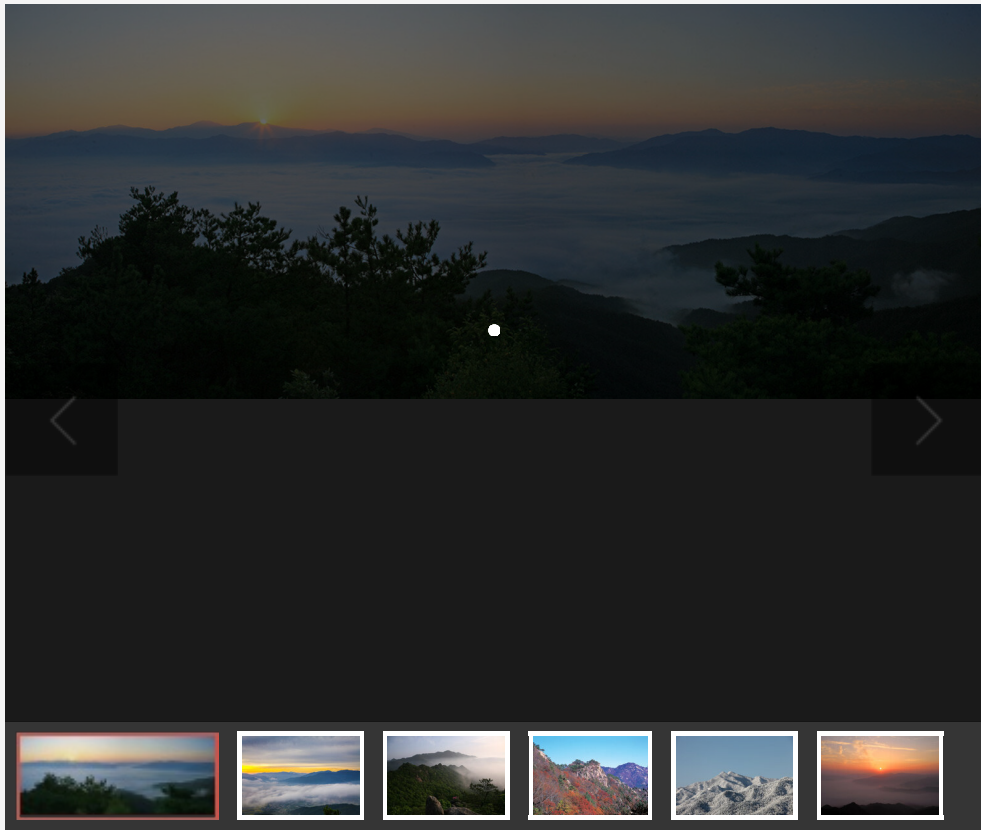
형제봉 정상에서 잠시 가파른 능선을 따라 내려서면 길상암으로 빠지는 작은 계곡길로 접어든다. 능선을 벗어나자마자 곧 길상암터에 이르게 되는데 우선 작은 암자를 만나게 되고 그 아래로 예전 절터 흔적을 볼 수 있다. 여기에 길상암 샘터가 있다. 계속 계곡길을 따르지만 하면 다시 청류동 주계곡에 닿는다(길상암에서 약 30분 소요)

배넘어재에서 북봉으로 가려면 북쪽으로 뻗어 오르는 능선을 타고 약 30분 정도 올라 삼거리(이곳 등산인들은 이 지점을 동약산 삼거리라고 함)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735m봉을 거쳐 북봉 정상에 도달한다(배넘어재에서 약 40분 소요). 정상에서 하산길은 남동릉을 따라 도림사로 내려서는 코스(약 1시간 소요). 동릉 상 번개바위를 거쳐 삼인동계곡이나 죽동리로 내려서는 코스(약 1시간 30분 소요)가 있다.

산 북쪽의 섬진강변으로 뻗어내린 청계동계곡에서 북봉으로 오르는 코스도 있다. 이 코스는 섬진강변을 따라 새로 낸 포장도로로 접근이 수월해져 최근 이 코스로 오르는 등산인들이 많아졌다. 계곡 입구에서 삼인봉 능선을 따라 삼인봉에 오른 후 역시 능선을 따라 동약산 삼거리까지 오른 후 북봉으로 잇거나 배넘어재로 이를 수 있다(청계동 계곡~동약산 삼거리 약 3시간 소요). 가장 많이 찾는 코스는 도림사~주계곡~배넘어재~형제봉~길상암~도림사 코스로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지만 산이 두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어 코스를 얼마든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산이다.

[주요등산로]

- 제1코스(2시간 30분 소요) : 도림사 - 주계곡 - 배넘어재 - 형제봉 - 길상암 - 도림사
- 제2코스(4시간 소요) : 죽동리 - 동약산 - 배넘어재 - 형제봉 - 주계곡 - 도림사
- 제3코스(4시간 소요) : 청계동계곡 - 동약산 - 배넘어재 - 주계곡 - 도림사
- 제4코스(4시간 소요) : 학정리 - 동약산 - 배넘어재 - 형제봉 - 길상암 - 도림사



위치 및 주변정보(주변10km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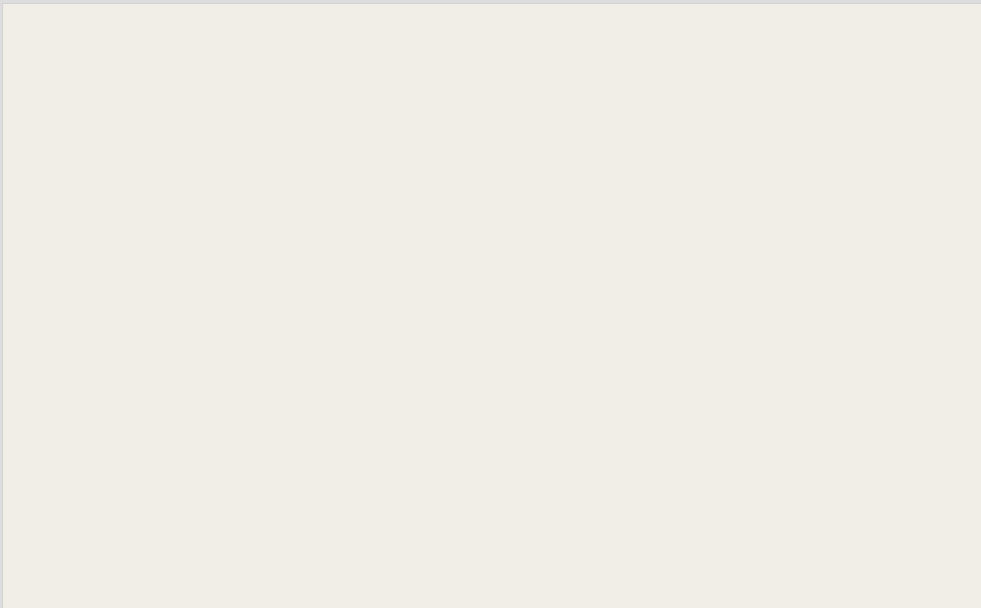


전체


관광지

음식

숙박



 동약산

 곡성군 곡성읍 도림로 175

 061-360-8780

자세히보기

관심콘텐츠 담기

 동약산 : 곡성군 곡성읍 도림로

 대중교통길찾기

175

목록으로

Web Contents

